

“불교는 한국문화 형성 기틀”

역사비평서 '역사속의 역사읽기'...고석규·고영진 교수 공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세계사리역사비평서(역사속의 역사읽기)(출판사: 불교신문)가, 역사를 제대로 읽어나는 시각을 길러주는 한창된 높은 역사서로 평가받고 있는 이 책이 불교관련 내용이 비중있게 잘 서술되어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역사속의...)는 국사학계의 신세대인 고석규(목포대·40)고영진교수(광주대·37)가 김상현(한국고원대)이선복(서울대)교수, 이이화(역사문제연구소장) 등 중진학자와 동료 소장학자 24명의 도움을 받아 3년여의 작업 끝에 출간했다. 선사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1백47개의 주제를 선정, 역사적 사실들이 갖는 상호연관성과 의미를 다각적으로 조명한 이 책은 '역사의 효용성'을 역사인식의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다. 특히 그간 대중 역사에서 소홀하게 다뤄진 불교관련사 부분을 민족문화사라는 측면에서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신라 천년의 역사’란 타이틀 아래 신라 문화의 국제성, △경주 여행 등을 자세히 다루고 있다. 이밖에도 각 시대마다 불교관련 내용이 다양하게 수록되어 있다. △근세의 화엄학 △

△지눌과 결사운동 △성리학 수용과 유불교제 등 우리 역사 학계에서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는 불교관련사를 골고루 서술하고 있어 불교가 한국사의 커다란 물결기를 이루고 있는

다. 신라불교의 문화사적 의의를 “신라불교는 불교라는 특정 종교로서의 의미보다는 통일신라를 전후한 시기에 우리문화를 형성하는 기틀로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 지적이 이를 잘 보여준다. 당시 국제적인 수준에 이른 이 시기 불교문화가 고령을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문화의 큰 뿌리를 형성해 왔다는 것이다. 또 신라 불교의 수용과 관련, “성골이라고 하는 골품이 불교의 수용과 더불어 생겨났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다”는 설명과 함께 불교왕명시대(법흥왕~진덕여왕)의 신라왕실이 인도의 석가모니를 탄

다. 신라불교의 문화사적 의의를 “신라불교는 불교라는 특정 종교로서의 의미보다는 통일신라를 전후한 시기에 우리문화를 형성하는 기틀로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 지적이 이를 잘 보여준다. 당시 국제적인 수준에 이른 이 시기 불교문화가 고령을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문화의 큰 뿌리를 형성해 왔다는 것이다. 또 신라 불교의 수용과 관련, “성골이라고 하는 골품이 불교의 수용과 더불어 생겨났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다”는 설명과 함께 불교왕명시대(법흥왕~진덕여왕)의 신라왕실이 인도의 석가모니를 탄

다. 신라불교의 문화사적 의의를 “신라불교는 불교라는 특정 종교로서의 의미보다는 통일신라를 전후한 시기에 우리문화를 형성하는 기틀로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 지적이 이를 잘 보여준다. 당시 국제적인 수준에 이른 이 시기 불교문화가 고령을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문화의 큰 뿌리를 형성해 왔다는 것이다. 또 신라 불교의 수용과 관련, “성골이라고 하는 골품이 불교의 수용과 더불어 생겨났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다”는 설명과 함께 불교왕명시대(법흥왕~진덕여왕)의 신라왕실이 인도의 석가모니를 탄

‘역사 효용성’ 기준 147개 주제 다뤄 벽화·불화등 통해 풍속생활상 분석 시대별 불교사 공정시각으로 서술

다. 벽화 불화 풍속화 등 미술 작품과 문학작품을 바탕으로 우리 조상들의 음식 풍속 생활상을 흥미롭고 밀도있게 기술한 점도 돋보인다. 이 책에는 ‘신라의 불교’라는 타이틀 아래 △이차돈의 순교 △불교계의 새 바람, 원효 △의상과 화엄종단 △신라의 불교 미술 △선종 구산문의 성립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도선의 풍수지리설 △호족의 얼굴, 은진 마륜 △묘칭의 난과 풍수지리설 △고려 팔만대장경 을 보여주고 있다. 불교관련사의 기술에 있어서도 공정한 시각을 잃지 않고 있

“오대산을 지장신앙 성지로”

김교각기념 일대기 다른 역사소설
‘중생이 다...’ 펴낸 이순창씨

“중국은 김교각기념의 유물과 행적을 소상히 기록하고 보존해 우리에게 바깥을 넘겨주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의 원류를 찾아 명실공히 완전한 역사 복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한국의 오대산과 중국 구화산 불교를 창시한 육신불(肉身佛) 김교각(일명 김지

장)기념의 일대기를 다룬 역사소설(중생이 다 제도된 후 에 거달음을 얻고 지옥이 다 빈 후에야 성불하리라)(그린나라 판)의 작가 이순창씨(39).

지난 93년 불교방송의 백팔요 작가로 활동하다 영월 지장정사 해전스님으로부터 중문으로 된 구화산(九



그가 이같은 연구에 나서게 된 것은 교각스님 연구의 주도권을 중국과 일본에 넘겨줬다는 반성에서 비롯됐다. 교각스님이 신라 신원왕의 아들이자 성덕왕의 둘째 형인 보림도(보현 또는 효조) 태자라는 그의 주장은 학계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오대산의 남대(南台)가 곧 교각스님의 육신불이 안치된 중국 구화산의 남대(南台)와 상통합니다. 교각스님이 8~24세 까지 수도했던 오대산을 구화산처럼 지장신앙의 성지로 가꾸어야 합니다.” <재>

국어사전 ‘중’ 표현 ‘승려’로 고쳐

금성출판사 개정판

금성출판사(대표 김인호)가 <뉴에이스 국어사전> 제3 개정판부터 본문에 상용되고 있는 ‘중’이란 단어를 모두 ‘승려’로 바꾸기로 결정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금성출판사는 최근 지난 87년에 초판을 발행한 <뉴에이스 국어사전>의 제3 개정작업을 앞두고 본문에 상용 중인 ‘중’이란 단어가 비칭(卑稱)으로 인식되는 등 현실과 괴리감이 있다고 판단, 개정판부터 ‘승려’란 단어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성출판사는 이 사전의 개정작업이 끝나면 <국어대

사전>(그랜드 국어사전)<콘사이스 국어사전>등의 개정판에도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작업은 다른 국어사전과 백과사전 등에도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여 일반인의 승보(僧寶)에 대한 인식전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성출판사 안상순 사서부장은 “그러나 ‘중’이란 단어의 표제어는 계속 사용되며, 승려의 존칭인 ‘승사’는 예전처럼 사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현재는 거의 비칭화 된 ‘중’이란 말은 원래 인도어 승가(僧伽, Samgha)를 한역한 ‘중(衆)’의 음을 따서 사용하게 된 말.

◇금주의 베스트블서 10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호림
2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우 학	좋은인연
3	삶은 고가 아니다	해 원	여시아문
4	그 마음을 바쳐라	김 재 용	용 화
5	생활합선 건강법	박 회 선	문 창
6	기도	일 타	호림
7	불교입문	조계종교원	조계 종
8	49세 공덕과 의미	편 집 부	이 바 지
9	위대한 자기의 발견	서 암	정 토
10	신도포교 지침서	성 일	불 관

구입문의: (02)737-0695

명사추천
불서 100선
불광법회요전

우리들은 어느때 한 번쯤은 인생의 의미와 종교적 신앙의 문제를 골똘히 생각해 보게 된다.

나는 평소에도 나름대로 불자의 다섯 덕목(德目)이라 하여 믿고(信), 교리를 이해하며(解), 실천적 행동을 통하여(行) 진리를 증득해야 하며 이를 널리 포교를 통하여 전법도생(傳法度生)하는데 이바지 해야 한다는 신념(信念)을 갖고 있다.

내가 이 책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약 15년전 서울 잠실에 있는 불광사(佛光寺)의 법회에 동참하여 광덕(光德) 큰스님을 친견하게 된 데서 시작된다.

이 책은 한국불교의 정통성을 수호하면서 반야사상에 입각한 화엄경 보현행원종의 심종대원(十種大願)을 그 실천행으로 하는 불자, 비불자 모두가 읽어야 할, 아니 읽음을 통해서 인간본성을 찾을 수 있는 신행(信行)과 포교의 경수(勸修)



정병조 (롯데그룹 醫保관리이사)

불교의식 현대화 내용 담겨 불성생명 얻는 지름길 안내

지침서로서 가장 적합한 책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이 책에는 불교의식(儀式)을 현대화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 특히 조계종단의 소의경전인 <금강경>의 내용이 쉽게 요해(要解)되어 있으며 더욱이 포삼요목(布薩要目) 즉, 참회를 통해서 선근(善根)의 증장(增長)과 악근(惡根)의 단절(斷絶)을 도모하는 의식을 구체화 하고 있어서 가일층 이 불서의 진가를 제고시키고 있다.

이 책은 ‘미하반야바라밀’의 불성생명으로 살아가는 행동지침을 가르쳐 주는 보배의 불서이다.

이 책에서 ‘반야보살 행원의 기도문’이 특히 돋보이며 ‘반야바라밀’이 제불보살의 불모(佛母)이고 보리도(菩提道) 성취의 길은 보현행의 실천을 경수하는 일이 그 지름길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의 세간사(世間事)도

관을 갖고 나는 생활하고 있다. 바른 믿음과 바른 실천. 그것만이 한국불교가 21세기의 모든 종교 가운데 가장 중추적인 종교로서 역할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또한 한국문화발전의 계승자로서의 종족적 소임을 다 할 수 있는 위상정립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볼 때 이 책은 우리 모두에게 여법하게 살겠다는 굳건한 서원과 365일을 부처님과 함께 하겠다는 불퇴전의 수행정진의 생활, 그리고 포교활동을 활성화하여 이 사회를 불교정토화할 수 있다는 밝은 미래를 제시(啓示)해 주는 그러한 불자의 삶을 일러주고 있는 것이다.

이 불서를 읽음으로 우리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진실된 삶을 살고자 하는 서원을 세워보기 바란다.

책방 여시아문 개업 두돌맞이 2대 특별 기획

특별 기획 그 첫번째

사보(寺報) 전시회

책방 여시아문에서는 포교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 사찰에서 발행되고 있는 크고 작은 사보(寺報)들을 모아 일주일간 본점 매장에 전시할 예정입니다. 생활 속의 불법 구현에 뜻을 두신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 전시기간: 10월 29일~29일(일주일간)
- ▶ 사보 구분:
 - ① 간별(유가, 무가) - 주간, 월간, 격월간, 계간 등
 - ② 판형별(유가, 무가) - 4x6판, 4x6배판, 국판, 국배판, 신문대판, 타블로이드판
- ▶ 전시 내용: 각 사보의 최초 발행만 및 최신 발행판 각 사보의 연혁 및 사찰 소개
- ▶ 관람객 인기투표: 재미 있는 사보, 인상 깊은 사보, 받아 보고 싶은 사보 등을 선정하여 현대불교신문 지상에 발표

*참여할 뜻이 있는 사찰이나 단체는 속공문을 받지 못하시더라도 저희 책방 여시아문으로 꼭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 기획 그 두번째

‘좋은 책 선정’ 위원회 발족

책방 여시아문은 고객 여러분의 보다 알찬 독서 생활을 위하여 ‘좋은 책 선정’위원회를 발족합니다. 신문 방송 등의 광고와 함께 일반 대형서점에 진열된 베스트 셀러를 때문에 오히려 ‘책 읽기’의 가버워지기과 편식 현상이 우려할 수준을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훌륭하게 기획된 우수 도서들이 정작 독자들의 손에 미치지도 전에 사장되어 버리는 경우 또한 흔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 같은 의미에서 책방 여시아문이 밝은 ‘좋은 책’은 고객 여러분의 독서 생활을 보다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 ▶ 선정 위원회: 각계 전문가 6명, 고객 6명으로 구성
- ▶ 고객 가운데에서는 독후감(불서에 한하여 5매 가량)을 접수 받아 그 가운데 안목이 뛰어난 고객 6명을 선출, ‘좋은 책 선정위원’으로 위촉합니다.
- ▶ 선정 기준: 선정 위원 각각 신간 2부, 구간 2부(총 48부)를 다달이 분사 양식에 따라 추천하고 그 가운데 신간 5종, 구간 5종을 선정
- ▶ 운영 방법:
 - 매월 15일까지 좋은 책 선정 위원으로부터 도서 추천 마감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1달 주기 전시 및 소개
 - 매월 선정된 도서는 소식지 및 현대불교신문에 게재

책방 여시아문
중로구 건지동 110-33
전화: 737-0695
팩스: 737-0696